

임종시 봉사자의 역할

최영순 선생님

I 임종간호란?

말기환자와 가족을 위한 증상의 통제를 중요시하며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충분히 하여 가족지지를 포함한 간호를 팀으로 행하는 일련의 돌봄이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면서도 각각 다른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 단계는 말기단계, 임종단계, 사별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임종단계는 말기 단계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임종과정이라고 부르며 임종 1주일 전을 말하기도 한다 이때 자원봉사자는 임종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발현하는 증상에 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증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므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가족을 적절하게 도울 수 있다

II 임종간호를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세

- 1 호스피스 환자의 죽음은 응급상황이 아니다
- 2 일련의 임종과정이 시작되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보다는 임종과정을 가족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 3 임종과정의 마지막에 환자가 사망하는데 가족들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임종의 증상을 알려줌으로 임종의 때를 알 수 있도록 한다
- 4 마지막까지 인격을 가진 한 인간으로 존중감을 갖는다
- 5 곁에서 환자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이해적 태도를 취한다

III 봉사자의 역할

임종이 다가 올 때 환자의 신체적인 증상이 더욱 심화될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이므로 호스피스팀의 일원으로서 봉사자들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한다는 지지자로서의 확신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자는 외롭지 않고 한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고통 받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권을 갖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환자와 가족이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므로 서로 좋은 이별이 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IV. 임종간호의 실제

1 임종 일주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

- 1) 활동범위에 감소
- 2) 수면경향,
- 3) 혼돈,
- 4) 음식물섭취 감소
- 5) 실금, 실변
- 6) 식은땀을 흘린다
- 7) 율혈로 불쾌한소리가 나다
- 8) 손발이 차가워진다
- 9) 소변 량 감소
- 10) 호흡의 변화

11) 대인관계 감소

12) 일반인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특이한 경험

2. 임종 전 돌봄의 실제

1) 신체 돌봄

- 체온상승이 있다고 해서 몸을 노출시키지 말 것
- 환자가 원하면 물을 공급하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을 때는 입술을 축여 준다
- 억지로 음식물을 먹이려하지 말 것(질식 우려)
- 따뜻한 물로 환자의 손과 발을 씻긴다
- 손과 발이 차지므로 보온성이 있는 가벼운 이불을 덮어준다(가운은 하지 않는다)
- 입관 전까지 입을 수 있는 옷과 양말을 미리 준비하거나 착용하도록 한다(원하는옷이나 한복 등)
- 구강이나 항문으로 이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 가족의 환자의 치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한다(중환자실에서 가족 참여가 어려우므로 일 인실이나 임종실에서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한다)

2) 심리, 정서적 돌봄

- 환자나 가족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기위한 질문을 한다
-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환자를 대한다(예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란 질문 보다 "나는 00입니다"라고 한다)
- 많은 질문은 삼가며 편안해지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예 "그간 참 ~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 환자나 가족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어 방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한다

3) 영적 돌봄

- 환자 및 가족의 종교에 따라 의식을 거행하도록 배려한다
- 종교 의식이 너무 길어 가족과의 이별을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임종 예배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임종 2-3일 전에 할 수 있도록 한다

- 임종 시 환자 곁에는 가족이 있고 봉사자는 그 주변에서 돕는다(가족이 이별할 때 같이 있다면 뒤에서 부드럽고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한다)

4)가족에 대한 돌봄

- 환자의 죽음을 가족이 수용할 수 있도록
- 모든 과정에 가족이 동참하도록 한다
- 가족이 환자의 위생을 함께 돕도록 한다
- 가능한 한 환자 옆에 있게 하여 환자에게 일어나는 상황을 보게 한다
-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환자인 경우 자녀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3 임종 후 돌봄의 실제

1) 죽음이 일어나는 때를 알 수 있는 현상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숨을 쉬지 않게 된다
- 심장이 뛰지 않는다
- 대소변이 나오기도 한다(실금, 실변)
- 반응이 없어진다
- 눈꺼풀은 열리거나 동공산대
- 눈은 어떤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
- 턱은 벌어지고, 입은 약간 벌어진 상태가 된다

2) 돌봄의 내용

(1) 임종자를 위한 돌봄

-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이고 기저귀를 갈거나 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이때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힌다)
- 가족들이 다 이별하기 전까지는 흠이불을 가슴까지만 덮어 얼굴을 보이도록 하고 손을 가지런하게 배위에 놓는다
- 시신이 오래 동안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경우 보일러를 끈다
- 발이 foot drop되지 않도록 지지한다
- 베개는 될 수 있는 대로 얇은 것을 사용하고 침대는 평평하게 유지 한다
- 턱은 떨어지지 않도록 지지한다(예, 타월)
- 환자의 종교와 관련된 테이프를 틀어준다

(2) 가족을 위한 돌봄

- 가족끼리 이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시간적, 공간적 배려를 한다
- 손을 꼭 쥐거나 몸에 손을 대고 환자의 가족에게 노고에 대한 인사를 건넨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4 장례절차와 관련된 정보제공

가족에게 장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임종 전에 이런 것들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하여 죄의식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편안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고 임종 직후의 가족의 상실감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킨다

1) 사망 장소 및 장례절차에 대한 선택

- (1) 임종장소 집/병원/기타
- (2) 장례예식 종교에 따라
기독교/천주교/불교/유교/기타
- (3) 장례방식 매장/ 화장/ 시신기증/기타

2) 영정은 준비되어 있는지

- 3) 연락처는 확보되어 있는지 가족이나 친지에게 연락할 번 호를 알아 놓고, 연학을 담당 할 사람도 정해 놓는다)

4) 장례집행 장소로의 운구와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

사망하기 전 이동을 할 경우, 119 (무료)
사망 후 이동을 할 경우 129 (비용부담), 가려고 하는 장례식장 운구차(비용부담)

5) 필요한 서류

- 사망진단서
- ① 필요량, 10통정도
- ② 준비물 환자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

- ③ 절차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을 위한 절차를 받고 영안실로 간다

- 6) 환자가 사용하던 물품이나 약제들의 처리에 대하여 해당기관과 상의한다 (마약이 있으므로 관리를 해야 한다)

V. 사별가족을 위한 배려

- 1) 호스피스팀과 문상을 하고 필요하다면 발인 및 하관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 2) 추후 사별가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됨을 알려주고 참여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염창환, 이경식, 이혜리, 홍영선(2000) 완화의학-암환자의 증상조절 군자출판사
한국호스피스협회편(2003) 호스피스 총론 한국호스피스협회 출판부
노유자, 한성숙, 안성희, 김춘길(1995) 호스피스와 죽음 현문사
강영우(2000) 임종 1주일 전 호스피스 한국호스피스 춘계세미나 학술지 한국 호스피스 협회 출판부
(윤건이)허대석 조현 (2003)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1주일 군자출판사
조유향(1994), 개정판 호스피스, 현문사
김분한, 김문실, 김남초, 이장섭, 정태준, 탁영란, 황애란 (1999), 호스피스와 실제, 수문사